학교 예산공개 요구 이전에 학생회가 먼저 공개해야

박홍총장 발언이후 증폭되는 학생회 불신

최근 서강대 박홍총장의 주사파 관련 발언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홍총장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지지와 함께 소수에선 섣부른 지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박홍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이제는 할말은 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또, 사회를 불안한 분위기로 몰고가는 암적인 존재인 주사파는 사라져야 한다는 소리들을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스컴들이 주사파가 모든 대학교에 매우 뿌리깊이 침투해 있어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마치 주사파 인듯이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우리들의 대학에는 유감스럽게도(?) 강남의 디스코텍 웨이터의 가명은 알아도 주사파가 뭔지 주체사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일, 생각없이 사는 대학생들이 도처에 많은 것이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서총련이 모든 대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념활동을 위해 학생회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돌려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제 모든 대학생들은 자신들과 부모님이 마련한 소중한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상반되는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학생회를 의심하며 불신하는 벽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심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간단하다. 학생회측에서는 회비지출 내역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대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수원캠퍼스의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들이 도처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땀흘리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음에도, 간혹 인정하기 싫은 소문들이 학생들간에 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거의 일만명이 가까운 우리가 입학때 냈던 실여만원의 학생회비와 매학기마다 내는 자치회비가 모이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 그돈이 전부 우리를 위해 쓰인다구? 웃기지 마.!' '야 제네 학생회 애들은 한학년을 한번 더 다녀도 문제없어, 학교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우리가 내는 학생회비도 있잖아?' '우리를 위해 쓰인다면서 왜 눈에 띄게 나아진게 없고 비싼 플랭카드 써가며 데모만 하고 대자보와 총학측 행사 인쇄물은 그렇게 많냐!?' 그들은 우리의 대표임에도 불신의 벽은 이미 높아져 있다. 누구의 책임이던가?

수원배움터의 경우 학생회비는 과총보비와 취업준비 및 여러 대내외 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학생회나 각 단대 혹은 과학생회의 월말이나 학기초 또는 학기말의 예산, 결산보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학생들은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학생회는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과, 단대, 총학생회가 회비 내역을 대자보화하여 게시하는 성의를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그런 믿기지 않는 근거없는 소문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정말로 매학기마다 하는 교재부대에 학교측에만 예산공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가 먼저 솔선해서 떳떳함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학교일에 관심없는 일부 몇몇 학생들을 무턱대고 탓하느니 보다 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모처럼 이번의 사건을 기회로 학생들도 학생회가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또 학생회도 다시 떼어나기를 바라며, 학생회측과 학생들간의 불신의 벽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길 영 목
〈화공·2〉

열린 소리

학교-학생 환경운동 선두주자로 나서야

분리수거 이렇게 합시다

지금 경희대 쓰레기 분리수거는 인권복지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단대 건물 앞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각 단대 복지일꾼이다. 인복위에서 추진한 분리수거 방식이 분리수거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한계는 각 단대의 복지일꾼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의 복지일꾼 숫자로는 현재의 각 건물앞 분리수거 용기도 처리할 수 없다. 두번째 한계는 가령 복지일꾼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복지일꾼을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바꾸어 그 숫자를 늘인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으므로 방학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번째 한계는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이 수위아저씨들이 처리하시는 쓰레기 총량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점이다. 이제는 학생들의 손에 맡겨진 쓰레기 분리처리 방식이 경희대 쓰레기 처리문제(크게 보면 대한민국 환경문제, 재활용 문제)에 얼마만큼 공헌할 수 있었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과연 전체적인 환경문제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리수거는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며 개개인에게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심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차원의 문제이다. 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에서는 이미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다. 경희학원이 경희의료원보다 분리수거문제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진 느낌이다.

현재 경희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한 트럭분이며 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하루 6만원씩을 학교예산으로 소요하고 있다.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 진다면 쓰레기는 학교의 지출 내역이 아니라 수입 내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현재 경희대 총학생 정원은 8500명입니다. 이들이 하루에 깡통음료 하나씩을 소비하고 깡통 하나에 심원씩만 계산하여도 하루에 8만 5천원의 수입이 생겨나게 됩니다. 깡통이 섞여서 처리되면 지출 내역으로 자리잡게 되지만 분리되여서 처리하면 수입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 엄청나게 버려지는 일반신문, 책자, 시험용 종보, 리포트 등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제 학생들은 분리수거-환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주도적 위치에서 틀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희대학교는 환경운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사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 환
〈한의 본·2〉

ROTC 미국 방문

많은 후보생 참여기회 늘길

우리학교 제108학군단은 8월 17일부터 8월28일까지 11박12일의 일정으로 자매결연 학교인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Ball state University를 비롯하여 하와이, LA,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뉴욕등지를 견학하고 산 지식을 넓힐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동아전기 이건수 대표(경희대 ROTC 2기, 정치외교학과)의 기탁금의 수익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군단 중령 최진학 외 1명의 장교와 이송필 외 4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참여했다.

1992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가 3번째이며 총 13명의 후보생들이 해외방문을 통한 견문을 넓혔으며 이는 한·미 ROTC후보생간의 우호증진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약 12일간의 일정동안 방문단은 미 학군단 시설 및 훈련장을 견학하고, 미 학군단장 및 후보생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우호증진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초청을 제의하기도 했다. 또한 Universal Studio와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였으며 4개지역(하와이, LA,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의 동문선배와 교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학생(사관후보생)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재인식하였으며 세계속의 경희인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이러한 미국 학군단 방문은 전국 80여개의 학군단 중 유일하게 우리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더욱 많은 후보생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국제화에 대비한 소양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진다. 아울러 더욱 많은 후보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송 필
〈정경대 무역 4〉

열린터

교수동정

최승훈교수 방중

【서울캠퍼스】최승훈(한의대)교수=14일부터 21일까지 중서의결합치료, 종양새끼나 참석겸 교비지원 저술자료수집차 중국방문

교직원 동정

수원캠퍼스 교직원 인사이동

▲조정=교무과장에서 학적과장으로 ▲이상목=애지원 운영과 관리주임에서 운영과 장대리로 ▲최의환=학적과장 대리에서 교무과장대리로 ▲조병춘=총무과 서무주임에서 기획실 기획과장대리로 ▲전현=연구처 연구과 연구주임에서 연구과장대리로 ▲조신욱=총무과 구매주임에서 서무주임으로 ▲심광식=기획실 관리주임에서 자연과학대 교무주임으로 ▲김문중=자연대 교무주임에서 총무과 구매주임으로 ▲권길조=학생과 복지주임대리에서 산업대학 교무주임대리로 ▲위형복=산업대학 교무주임대리에서 학생과 복지주임대리로 ▲한영선=사무처수습서기에서 사무처 총무과로 ▲김학정=사무처 수습서기에서 기획관리실로

동문동정

안중기동문 승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던 안중기(정외 11회졸)동문이 지난 7월22일 의정연수원장에 승진, 임명되었다.

안동문은 국회 섭외, 관리국장, 각 상임위 입법조사관, 심의관을 거쳤으며 이번에 신설동 의정연수원장에 취임하여 구 의장공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편 국회인상이동에서 정부행(법학 12회졸)동문이 섭외국장에서 관리국장으로 전보되었다.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대한배드민턴협회=신입사원○명, 체육학과, 9월15일까지 422-6173~4연락, 공체 ◆삼환까무=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15일까지 740-2273~6연락, 공체 ◆한양해운(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15일까지 722-7169연락, 공체 ◆남영나이론(주)=신입사원○명, 법대, 정경대, 수원, 9월13일까지 630-1114연락, 공체 ◆나드리화장품(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17일까지 744-7733연락, 공체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센터=신입사원○명, 문리대, 사대, 수원 9월14일까지 786-3411연락, 공체 ◆대한방직(주)=신입사원○명, 문리대, 정경대, 수원 9월14일까지 368-0351~7연락, 공체 ◆동전그로발(주)=신입사원○명, 문리대, 사대, 수원(여학생), 9월15일까지 837-3131연락, 공체 ◆한국방송공보협회=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13일까지 701-3060연락, 공체.

【수원캠퍼스】◆한국오츠카제약(주)=신입사원○명, 화학과, 화공학과대상 9월22일까지 0339)353-5666~8연락 ◆한양해운주식회사=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196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9월15일까지 722-9091 연락.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점포장○○명, 전공제한없음. 9월24일까지 02)592-3442연락.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이용병(영문)▲박정은(영문·3) ▲홍성철(생물·3) ▲김의진(영문·1) ▲김철용(영문·2) ▲양권의(치리·3) ▲박순누(법·3) ▲이소연(행정·4) ▲박공원(법·4) ▲송진현(행정·4) ▲김성수(회계·90) ▲양병우(신방·4) ▲강석구(경영·2) ▲김제현(무역·2) ▲최광렬(경영·3) ▲김정헌(경영·4) ▲이영일(경영·4) ▲최필란(가관·2) ▲이미라(의상·3) ▲은영규(의예·2) ▲이선민(의예·2) ▲신승훈(의본·4) ▲김선주(의본·1) ▲박관우(의예·1) ▲이한규(의예·1) ▲정춘구(한본·3) ▲김경숙(한본·3) ▲신현욱(한예·1) ▲유선영(치본·2) ▲이지연(기약·4) ▲김광요(농구·4) ▲박성배(농구부) ▲김은주(삼의원·209)

【수원캠퍼스】▲김상섭(영문·3) ▲김현주(서반어·2) ▲박성백(행정·1) ▲최항규(국제·3) ▲황철구(사회·3) ▲김동현(우주·3) ▲최정녀(물리·4) ▲하현주(전자·3) ▲김규열(전자·2) ▲김기석(전자·2) ▲이승복(전자·4) ▲김창열(전자·4) ▲박종환(토목·4) ▲이권익(화공·2) ▲유종범(화공·2) ▲고하나(전산) ▲정유동(기계·3) ▲최종수(원자·3) ▲지상욱(체육·2) ▲김창문(체육·2) ▲남익정(배드민턴) ▲심현주(애지원 332) ▲김창문(애지원 107) ▲김형환(애지원 118)

분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지갑=▲박병삼(일문·3) 9월7일 사회대 2층화장실 검은색(현금카드·학생증·주민등록증) ◇열쇠꾸러미=▲석재혁(기계·4) 9월9일 아침 학생회관 로비에서 분실. 지갑같이 생겼음.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삼의원사생증 명서=▲윤대석(회계·93)

【수원캠퍼스】◇지갑=▲박근영(유전·91) ▲최영(기계공·90)

동문모임

제주제일고 동문회

【서울캠퍼스】▲부천고=오는 16일 오후 6시 씨씨 호프 ▲전일고=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정문앞

【수원캠퍼스】▲선정고=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성남고=오는 15일 오후 6시 2호관 돌다방 ▲경상사대부고=오는 14일 오후 5시45분 공대식당 ▲수성고=오는 15일 오후 5시30분 외대식당 ▲김천고=오는 15일 오후 6시 공대식당 ▲광주 동선고=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동원고=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2호관 돌다방 ▲제주제일고=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 257강의실

고 침

지난 5월 30일자 1면의 교시법기사중 '야구방망이등의 운동기구를 사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 대학주보는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보도와 경희 전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 학 주 보 사

朔風

마지막 보루 '정론직필'

최근들어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론이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그 논쟁은 해 보나마나한 것이 되고 만다. 지하철·철도파업, 현대중공업사태 등 최근의 굵직한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처음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주었다. 결국 언론이 의도했던대로 결론이 났다. 사안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일단 유보해 놓고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철저하게 묵살해 버리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이 편들었던 쪽이 한결같이 가진자, 힘있는 지였다는 사실도 선뜻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다.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주사파 논쟁에서도 언론은 본연의 태도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출처도 근거도 없는 뜬소문 같은 말들을 마치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단정짓고 부풀리기 경쟁을 했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의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임을 감안할때 그것은 언론 스스로의 존재 부정이란 할 수 있다. 그 발언의 애매모호함과 포괄성으로 인해 '생사람 때려잡을'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어느 구석에서도 그러한 위험을 지적하는 글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짐지 않은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의 부분 부분에서 사상을 빌미로 자행된 마녀사냥의 예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사상의 공포분위기만 조성해놓고 우리 현대사를 난도질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열치없게도 다시 고개를 쳐들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오로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사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았던 집단이 최근 한번이라도 뭉쳐 반격의 깃발을 서서히 올리고 있는 사실이 좋은 예가 될것이다.

반면 언론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입맛을 맞추느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된다. 소위 문민정부 개국공신이라 일컬어지는 실세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한다 안한다 자고 나면 바뀌기를 일주일을 넘게 계속하고 있다. 정치적 타산에 따른 구민내 나는 권력내부의 싸움에 언론이 어느쪽의 편도 들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유 탓이다. 과연 필요한 것이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문민시대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는 언론의 정체에 가까운 횡포의 일단들이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언론의 잣대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자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격려적인 비판뿐이라고 생각된다. 언론 바로세우기 범국민 운동이라도 해야할 판이다.

〈無明〉

이제 우리의 상대는 세계입니다.-②동경대를 찾아서

21세기의 하늘은 우리가 만듭니다.

"21世紀の 蒼空は われわれに 任せうれる"

일본을 이끌어 가는 자존심-東京大

"동경대학 연구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한 일본은 다시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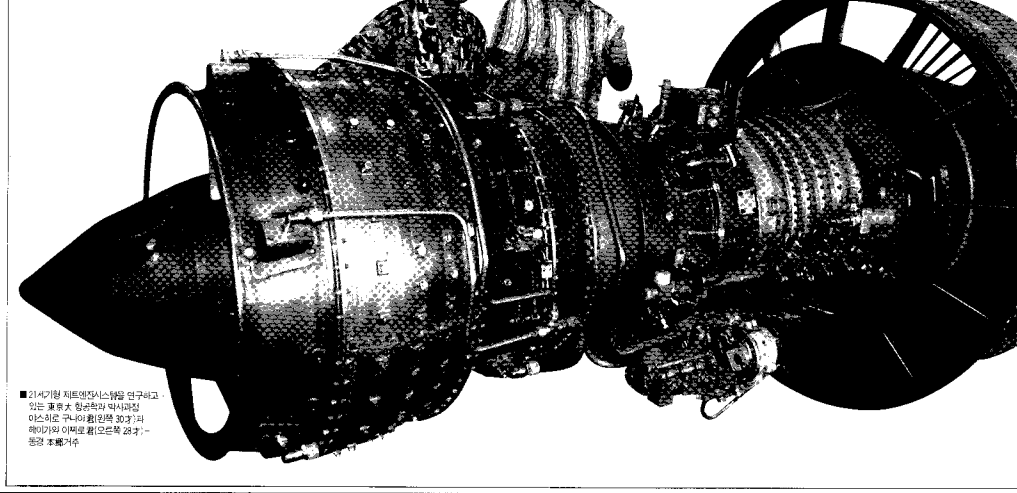
패전의 폐허 속에서 일본 국민의 희망과 믿음으로 일본의 근대사를 이끌어 온 동경대. 이들은 일찌기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의 대학과 경쟁,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서구의 단순한 모방을 뛰어 넘어, 기초학문 육성을 통한 첨단기술의 개발뿐이라는 믿음 아래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동경대 기술개발의 산실인 생산성 기술연구소—

"21세기의 하늘은 우리가 짜인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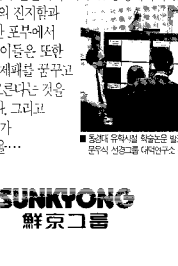
21세기형 제트엔진 시스템의 연구를 위해 연구소의 밤을 밝히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일본의 미래를 짜임지겠다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21세기 일본의 주역이 될 동경대의 주인들—

이들의 진지함과 위대한 포부에서 어쩌면 이들은 또한 번의 세계세패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거부여야 할 상대임을….



■21세기형 제트엔진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東京大 항공학과 박사과정 아스하로 구니아키군(왼쪽 30才)과 레이가와 이찌로 군(오른쪽 28才)-동경 本郷/거수



■동경대 유학시절 학술논문 발표중인 필자(왼쪽)-문무식 선경그룹 대덕연구소 수임 연구원

SUNKYONG 鮮京그룹